

민주당 非文 주자들 문재인 대세론 난타

박원순 “참여정부 시즌2 안데…‘촛불공동정부’로”

이재명 “대세는 깨지기 마련…나는 성장하는 나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레이스가 서서히 가열되면서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의 ‘문재인 패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대세를 굳히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세론은 강해 보이지만 고립된 ‘나홀로 합대’에 불과하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했다.

이어 “가득권에 안주한 패권정치, 구태 의연한 여의도정치는 청산의 주제,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패권 정치, 여의도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폐쇄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문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또 “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선 뜨거운 촛불민심과 연대할 ‘민주연합합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차기정부는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문 전 대표가 “경쟁 대선주자들 궁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발언한 데 대

해서는 “패권적 발상이다. 협치와 연대는 정부 수립 이후에 한다면 늦다”면서 “특정 정파의 집권만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굉장히 개혁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기대와 달리 정책적으로 많은 실패를 했다”면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문 전 대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대세론’을 겨냥,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대세가 유지돼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일생을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게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대세론이) 가능한데,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대세론이 유지된 경우는 별로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에 대해 “포용적 능력이나 경륜을 다 갖춘 분이고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는 성군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대마다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난세영웅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높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무를 넘으면 되지 않나.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청문회 ‘신스틸러’ 이용주

18번 호통 질의…블랙리스트 모르쇠 조윤선 자백 이끌어

국민의당 이용주(여수시 갑) 의원이 ‘모르쇠’로만 일관하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면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5분간 무려 18차례에 걸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추궁해 결국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답게 이날 청문회에서 작심을 하고 나온 듯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심증이 짙은 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를 다루는 듯한 모습으로 조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줄곧 ‘모르겠다’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던 조 장관을 이 의원은 끈질기게 같은 질문만을 던지는

방법으로 궁지에 몰아 넣었다. 조 장관은 이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한숨을 내쉬거나 허탈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날 이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 이어 또 다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24기로, 서울 북부지검·순천지청 검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安·孫 광주 지지모임 “결선투표 도입을”

광주내일포럼·국민주권개혁회의 공동 시국토론회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와 순화규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모임이 공동으로 광주에서 시국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안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광주내일포럼’(상임대표 범희승·전남대 의과대 교수)과 순 전 대표의 지지단체인 국민주권개혁회의(가칭) 광주분부는 10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결선투표제와 우리의 선택권’이라는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가졌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광주내일포럼이 추진하는 ‘촛불민심으로 국가 대개혁의 길을 찾는다’는 기획의 연속 시국토론회 첫 번째 행사다.

이날 토론회로는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영국 국민주권개혁회의 광주추진단본부장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성권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최홍열 조선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 소장은 “제19대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결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선투표제의 취지와 효과, 세계적 실시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헌 없이도 얼마든지 결선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비대위 출범 새누리…제대로 굴러갈까

인명진 비대위원 선임 후 첫 회의

‘비박’(비 박근혜)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혼돈에 빠졌던 새누리당이 일단 체제 정비 틀을 잡았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수습을 뒷받침할 비대위원을 선임함에 따라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정우택·이현재·박완수·김문수 비대위원이 선임된 이후 첫 회의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은 총 5명이 됐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선 추가 비대위원 선임을 통한 ‘국민참여비대위’ 구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박계의 조직적 반발 속에 상임전국위 추진을 받고 10일 첫 출범한 인명진 비대위 체제는 당 쇄신의 최우선 과제로 인정정산을 꼽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인적정산’ 대상에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 등의 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도 논의됐다.

인 위원장은 오전 회의에 이어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열리는 ‘새누리당에 회초리를 들어라’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연직 비대위원에 선임된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연합뉴스

“양원제 통한 지역분권형 개헌해야”

국민의당 최경환 정책자료집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현재 개헌 논의과정에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정신과 실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양원제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교 최영태 교수(인문대 사학과)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번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 대안으로 ▲지방세제도 개선·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재정 분권 ▲지방 명문대 육성안 ▲상생발전기금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원순 오늘 광주 방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광주를 방문한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교류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자신이 가장 확장력 있는 준비된 대권 후보임을 내세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민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潘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는다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된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영예수여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훈장을 받는 인사는 반 전 총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연합뉴스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보양평수 16평)

010-7384-7800

상가매매 전문

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장)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 매가 22억

④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 매가 1억4천만 (용5천)

⑤ 상무지구 오피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원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 매매 6천9백만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윅,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촌동 일몰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변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훌륭,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서구매일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3평
현 장례식장 운영
상광주역 1분
▶감정가 110억 → 최저가 110억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점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첨단지구 식당임대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

★ 보 5천
월 300만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

* 평수 - 15평

◆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

★ 보 2천
월 6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평택 투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 120만평

▶ 110만평

브레인시티/평택형 개항/미군부대 이전

☆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

❶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❷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순수익 5억!!)

※1필지 200평 → 1억투자시 가능

☎ 062-511-7800
010-6832-9700